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울이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익과 장점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대로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출 39:42~4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히 하매 43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존 비비어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며 100%의 순종이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절대 순종입니다.**

☼ 적용 질문 1

1)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반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 2.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갑니다.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였기에 거센 유혹 앞에서 죄를 범치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 39:9)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압도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 적용 질문 2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2)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의식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 3.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부종하다’의 원어 ‘다바크’는 ‘힘써 좇아가다’의 뜻으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힘써 좇아가는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1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꺾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떠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제하는 것이 곧 충성됨입니다.

데살로니가 5:22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며 갖가지 악의 모양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전 5:22~23) **“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어렵고 여러가지 장벽이 있어도 충성된 이의 삶의 모습은 악을 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이 충성된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 적용 질문 3

1)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힘써 좇아가야 할 모습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2) 나에게 제거하거나 피해야 할 악한 모습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